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벨하 신앙고백에 관한 30 가지 묵상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벨하 신앙고백에 관한 30 가지 묵상

Reginald Smith, Marvin J. Hofman, Kathy
Vandergrift 저

The Scripture quotations in this publication are from the HOLY BIBLE, TODAY'S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2001, 2005 by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From the Heart of God: Thirty Devotional Readings on the Belhar Confession © 2010, Faith Alive Christian Resources, 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

All rights reserved. With the exception of brief excerpts for review purposes,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in Publication Data

From the heart of God: thirty devotional readings on the Belhar confession / by Reginald Smith, Marvin J. Hofman, and Kathy Vandergrift.

p. cm.

ISBN 978-1-59255-536-9

1. Belhar confession. 2. Devotional literature.

I. Hofman, Marvin J. II. Vandergrift, Kathy.

III. Title.

BX9429.B44S65 2010

242'.804268—dc22

2010016942

10 9 8 7 6 5 4 3 2 1

목차

벨하 신앙고백	5
시작 묵상	11
연합에 관한 묵상.....	13
<i>Reginald Smith</i> 저	
화해에 관한 묵상.....	35
<i>Marvin J. Hofman</i> 저	
공의에 관한 묵상.....	53
<i>Kathy Vandergrift</i> 저	
마침 묵상.....	75

벨하 신앙고백

1986년 9월

1. 우리는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2. 우리는 모든 인류로부터 구속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기독교회를 믿는다.

우리는 믿는다:

-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 화목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나타나야 한다 (엡 2:11-22);
- 그러므로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자 의무이다. 연합하도록 묶는 힘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성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엡 4:1-16);
- 이 연합은 명백히 드러나서, 민족과 집단간의 분리와, 증오와, 미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죄라는 것과 따라서 이러한 연합을 해치는 어떠한 것도 교회에서 용인되지 않고 배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한다 (요 17:20-23);
-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이 연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공동체 삶을 경험하고, 실천하고, 추구하는 여러 방면에 적극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헌신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같은 신앙과 같은 소명을 가지고,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동일한 세례를 받아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같은 주님을 고백하고 순종하여,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노력한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자라감으로 새로운 인류를 이룬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인식하고 분담하여, 우리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공의를 위해서 서로 고통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연합을 해치는 모든 것들에 대항하면서 이 세상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 (빌 2:1-5; 고전12:4-31; 요 13:1-17; 고전 1:10-13; 엡 4:1-6; 엡 3:14-20; 고전 10:16-17; 고전 11:17-34; 갈 6:2; 고후 1:3-4);

- 이 연합은 억압이 아닌 자유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기회, 배경, 신념,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다양함은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이며,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섬기고 풍성함을 누리는 기회가 된다 (롬 12:3-8; 고전 12:1-11; 엡 4:7-13; 갈 3:27-28; 약 2:1-13);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신앙이 이 교회의 성도가 되는 유일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교리를 반대한다:

- 자연적인 다양성이나 사람들 사이의 최악된 분열을 절대화하여 현실 교회의 적극적인 연합을 방해하고 파괴하거나 또는 교회분열을 조장하는 교리를 거부한다;
-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사실상 서로를 소외시키고 화해를 포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평화의 줄로 참된 연합이 유지되고 있다는 고백을 반대한다;
- 참으로 귀중한 선물인 이 가시적인 연합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부정하는 교리를 반대한다;
- 명백하게 또는 은연중이라도, 사회전통이나 다른 어떠한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요소가 교회의 성도의 자격을 규정한다는 교리를 거부한다.

3. 우리는 믿는다:

-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메시지를 교회에 맡기셨다. 교회는 이 땅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며, 교회는 화평케 하는 사역으로 복되다 일컫는다. 교회는 그 말씀과 행동으로 공의가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증거한다 (고후 5:17-21; 마 5:13-16; 마 5:9; 벡후 3:13; 계 21-22);
-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불화와 미움, 갈등과 반목의 기운도 정복되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사회와 세상에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여는 순종의 새 삶을 살게 한다 (엡 4:17-6:23; 롬 6; 골 1:9-14; 골 2:13-19; 골 3:1-4:6);

- 아무리 기독교를 표방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인종적 편견으로 구조적 분리를 조장하고 소외와 미움과 반목을 고착시키려는 곳에서는 이 진리의 신뢰성은 크게 훼손되고 유익한 사역은 방해받는다;
- 비록 복음을 표방하지만 강제적인 분리를 합법화하려는 어떠한 가르침이나, 순종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편견과 두려움, 이기심과 불신 때문에 복음의 화목케 하는 능력을 부인하는 모든 가르침은 잘못된 사상이나 거짓 교리로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부한다:

- 우리는 복음의 이름이나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아래 인종과 피부색의 차이에 따른 강제 분리를 찬성하여,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역과 화목된 삶을 방해하고 약화시키는 모든 교리를 거부한다.

4. 우리는 믿는다:

-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공의와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분으로 나타내신다;
- 하나님은 불의와 반목이 가득한 세상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궁핍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서 억눌린 자에게 공의를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식량을 주기를 원하신다;
-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눈먼 자의 시력을 회복시키신다;
- 하나님께서는 학대받는 자들을 도우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도우시며, 불의한 자의 길을 막으신다;

- 하나님께 있어서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종교는 고통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 하나님은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고 공의를 추구하도록 가르치신다 (신 32:4; 눅 2:14; 요 14:27; 엡 2:14; 사 1:16-17; 약 1:27; 약 5:1-6; 눅 1:46-55; 눅 6:20-26; 눅 7:22; 눅 16:19-31; 시 146; 눅 4:16-19; 롬 6:13-18; 암 5);
-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어떠한 곤경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그들 편에 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공의가 물같이 정의를 하수처럼 흐르도록, 교회는 어떠한 형태의 불의에도 반대하고 저항하여야 한다;
-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주님이 서신 곳에 서야 하며, 특별히 불의에 반대하고 부당하게 대우받는 자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해를 끼치는 모든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를 정당화하는 어떠한 사상이나 그러한 사상에 복음의 이름으로 저항하기를 주저하는 모든 교리를 거부한

5. 우리는 믿는다:

- 홀로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는, 이것이 비록 정부와 인간의 법에 반하고 때로는 처벌과 고통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이상의 교리를 고백하고 실천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엡 4:15-16; 행 5:29-33; 벧전 2:18-25; 벧전 3:15-18).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오직 한분이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주: 이상은 1986 년도에 South Africa 의 Dutch Reformed Mission Church 의 총회에서 채택된 아프리카 언어로 된 벨하 신앙고백 원본의 번역이다. 1994 년도에 Dutch Reformed Mission Church 와 Dutch Reformed Church in Africa 가 연합하여 Uniting Reformed Church in Southern Africa (URCSA)를 형성하였다. 본 원고의 포괄적인 언어는 Office of Theology and Worship, Presbyterian Church (U. S. A.)에 의해서 준비되었다.

시작 묵상

주: 본 묵상은 CRC 교단의 교회연합 관계 위원회 (Ecumenical Relations Committee)를 대표해서 벨라 신앙고백에 관한 교단 차원의 논의를 인도하는 Peter Borgdorff 박사가 작성하였다.

영들을 분별하라

요한 1 서 4:1-2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북미주 개척교회는 교단 차원에서 벨라 신앙고백을 분별하고 논의하고 있다. 모든 신앙고백이 그렇듯이 벨라 신앙고백도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난 신앙의 선언이다. 벨라 신앙고백은 남아프리카의 성도들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벨라 신앙고백은 유럽이나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진 개척교회의 첫번째 신앙고백이다.

이 묵상들은 세계의 개척교회들에게 벨라 신앙고백을 지지하도록 요청하는 묵상이 아니다. 이 묵상들은 벨라 신앙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의 주제들, 즉 연합, 화해, 그리고 공의에 대한 묵상을 기록한 것이다. 이 묵상들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도록 요청하는 말씀에 대한 깊은 생각을 적은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모든 신앙고백들이 그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앙고백이란 교회에 의해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신앙의 선언이기 때문이다. 신앙의 선언이 진정으로 의미있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이 묵상이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벨라 신앙고백에 선언된 연합, 화해, 그리고 공의가 그러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지 영적으로 분별하도록 돕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한다.

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옵소서. 아멘.

연합

“우리는...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자
의무인 것을 믿는다.”

-벨하 신앙고백

연합에 관한 아래의 묵상들은 Grand Rapids, Michigan 에 있는
Roosevelt Park Community CRC 의 담임목사인 Dr. Reginald Smith 의
글이다.

공유하는 기초를 찾기

시편 133 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하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경우를 “다른 마음 이론”이라고 부른다. Malcolm Gladwell 은 자신의 저서 What the Dog Saw and Other Adventures 에서 “한 살 짜리 아이는 자기가 동물과자를 좋아하면 자기의 엄마와 아빠도 그것을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자기들의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있는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Little, Brown and Co., 2009, p. ix).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사람들 사이에 공유하는 기초를 찾는 것이 쉬워지지는 않는다. 많은 것들이 우리 사이를 나누어 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공유하는 분명한 일치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동일하고 유일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이다.

다윗 왕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그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열 두 지파를 한 백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모두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윗은 그들 모두로부터 고통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자비에 대한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험란한 역사를 통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공유하는 기초를 그들은 발견한 것이다.

그와 동일한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진리를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벨라 신앙고백은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자 의무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한 백성으로 살면서, 일하면서, 그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기도

예수님,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연합을 해치는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을 떠서 하나님 한 분 만이 우리 사이에 공유하는 기초라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함께 사는 삶

에베소서 4:1-5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Eugene Peterson 과 그의 아내가 피츠버그에서 한 연못가를 거닐고 있었다.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그들을 지나쳐 가더니 앞에 서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Peterson 부부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였다. “당신들은 몇 년동안 부부로 살았습니까?” “삼십 년 동안입니다.” 그 사람은 말하였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 둘이 정확하에 발을 맞추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아내와 오 년 함께 살고 있는데 그렇게 걸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조금씩 박자가 틀리게 걷거든요” (Practice Resurrection: Eerdmans, 2009, p. 179).

서로 보조를 맞추어 함께 걸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인내와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마 바울이 배웠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바울은 빠른 것을 좋아하였다. 한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다른 도시로 갈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에베소로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그들도 똑같이 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우리 형제나 자매들을 돌아보지 않고 산다. 그러면서 생각없이 그들에 부딪히거나 그들을 뒤에 두고 앞서 가기도 한다. 성령께서는 아무도 우리 뒤에 처지게 하지 말 것을 가르치신다. 성령께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안에 연합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성숙한 모습이다. 오래 함께 산 부부에게 물어보라.

기도

예수님, 나의 목표와 욕심 때문에 연합하지 못하고 앞서 나가는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의 연합 안에 모든 형제와 자매와 함께 가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웃음

요한복음 17:20-23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는 두 교회가 하나로 합한 교회의 목회를 위해서 1994년에 미시건주의 그랜드 래피츠로 이사왔다. 그 두 교회는 서로 다른 역사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그 연합된 교회는 다투곤 하였다. 우리는 예배 스타일에 대해서,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소프트볼 팀에 대해서 다투었다. 서로 합하여 한 교회를 이루려는 노력은 이러한 싸움으로 망가지게 되었다. 예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우리 커뮤니티에 증거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다.

요한이 주 안에서 형제들과 자매들의 연합을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셨음을 기록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가까운 관계를 우리가 본받기를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몸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셨다. 분쟁과 다툼이 만연하는 세상에서 교회가 진정으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다.

벨라 신앙고백은 연합을 “성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신의 삶과 당신의 교회의 삶은 연합을 성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반영하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다투면서 우리 안에 연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 안에서 복음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을 맞잡고 주의 기도를 같이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며 세상이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습에 예수께서 웃으시는 것을 상상해 보라.

기도

주님, 우리의 연합이 진실한 것이고 지속적인 것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셨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기

빌립보서 2:1-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009 년도에 출시된 영화 Invictus 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넬슨 만델라는 과거 형태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인종차별을 조장하던 반대파는 선거에서 패하고 흑인들이 세력을 잡을 것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만델라가 처음 취한 행동은 그의 대통령 사무실에서 일해온 백인들을 그대로 일하게 한 것이었다. 그는 이제까지 다스리던 백인들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따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주장하던 두 민족의 공존의 이상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연합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지고 병든 세상에 함께 서야 한다. 벨하 신앙고백은 “이 연합은 명백히 드러나서, 민족과 집단간의 분리와, 증오와, 미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죄라는 것과 따라서 이러한 연합을 해치는 어떠한 것도 교회에서 용인되지 않고 배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한다”고 백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병든 세상을 치료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의 아픔을 안아서 치료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무손 목적으로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가를 알려줄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태도를 버린다면 우리는 이웃의 유익을 먼저 위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께서 탄생으로부터 죽으시기까지 본을 보이신, 그리고 교회에 보여주신 삶의 양식이다. 이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서로에게 실천할 차례이다.

기도

예수님, 당신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겸허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방주사

고린도전서 1:10-13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2009 년도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H1N1 바이러스의 출현이다. 이 바이러스의 퍼짐을 막기 위해서 위생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이 손을 자주 씻고 입을 막고 기침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울 시대에 고린도 지역에 분열과 불일치라는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멈추는데 노력하지 않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였다. 말씀의 의사인 바울은 교회 안에 만연한 이러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처방을 내렸다.

고린도 지역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바울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사람을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의 아버지에게 새로운 관계로 연결시켰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이다!

바울은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적용시켜서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가지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성과 인성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다.

복음의 능력은 분쟁과 나뉘이 있는 곳에 연합을 이룬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방주사를 전파한다면 교회의 연합을

가지고 세상의 분쟁의 고통과 싸우며 세상에 진정한 건강과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기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세상을 괴롭히는 분쟁, 나뉘, 그리고 불화와 싸우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의 은사인 연합, 사랑, 그리고 자비라는 치료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2:4-11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을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어느 신학교의 학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한국에서 나는 눈먼 점장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한국 친구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눈이 먼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기적적인 재능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살던 고린도의 사람들은 그러한 재능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오직 방언, 병고침, 예언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함을 보이는 기적적인 은사에 치중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의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모든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성령의 은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재능, 능력, 그리고 기술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벨라 신앙고백은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헌신할 책임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 이웃에게 유익하도록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여러 가지 길과 방법이 있다. 지혜로운 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을 피하게 하고 더 나은 삶의 목표를 가지게 한다. 식당에서 웨이트레스의 친절한 봉사는 하루를 힘들게 지낸 엄마의 피곤함을 씻어줄 수 있다. 의사의 숙련된 치료는 환자의 아픔을 제거해 줄 수 있다.

주님께서는 은사와 재능을 과시하라고, 주목을 받게 하라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보이라고 주신 것이다.

기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들과 자매들이
가진 은사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여러
풍성한 은사들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눈과, 귀와,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한 몸

고린도전서 12:12-25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한 심리학 교수가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신문에서 몇 장의 사진이 있는가 찾아보라고 요구하였다. 어떤 사람은 몇 초 만에 찾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몇 분이 걸려서야 찾게 되었다. 이렇게 다름은 그들의 수를 헤아리는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 그 신문의 두 번째 페이지에 “세지 마시오. 이 신문에는 43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라고 쓰여있기 때문이다.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진의 수만 헤아리게 바빴다.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은사에 치중한 나머지 더욱 중요한 메시지인 함께 노력할 때에만 그리스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였다. 바울은 사람의 몸이라는 쉬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의 우리 삶의 연합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은 나눔이 아니고 포괄적인 연합이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고린도 사람들과 다른가?

바울은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눈은 새의 지저귀음을 듣지 못한다. 귀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지 못한다. 바울은 예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18-20 절).

기도

예수님, 우리들은 각각 독특하고 다르게 만드셨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민족들로 당신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셨음을
인식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가족에 속함

에베소서 3:1-6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Survivor 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한 그룹의 서로 모르는 사람들 서로 유혹하고, 울고, 속이며 백만 달러를 차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고 있다. 한 경쟁자가 그 그룹으로부터 낙오하면 진행자는 미안하지만 재미있다는 식으로 “그룹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 삶으로 떼어내기를 원한다. 바울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상대를 하나님의 가족에서 떼어내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둘을 모두 은혜와 자비의 가족에 포함하신다는 사실에 바울은 주목하고 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속한다는 점을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은혜의 이야기는 신비로 시작한다. 은혜라는 단어는 본문에 세 번 나타난다. 바울은 우리가 이 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아무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 벨라 신앙고백을 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신앙이 이 교회의 성도가 되는 유일한 조건이다.” 예수께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가족에 포함시키신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

기도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전통을, 그리고 우리 민족을 한 주님 안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월하게 생각했음을 용서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되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이름

갈라디아서 3:26-28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Whoopi Goldberg 라는 여배우가 조연 배우상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받으면서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그는 “내 이름 Whoopi 앞에 지금부터 ‘아카데미 상 수상자’라는 세 단어가 붙을 것이다. 사람들은 내 이름 앞에 그것을 붙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고생 끝에 유명한 상을 받으면서 새로운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그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녀는 또 하나의 성공적인 영화에 출연하거나, 돈을 많이 벌 인격을 지녔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또는 신문에 단독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도 그 새로운 명칭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안식을 그녀는 누려도 좋게 되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명칭, 그것으로 세상에서 전혀 다름을 증명하는 명칭이 부여되었음을 알게 하였다.

갈라디아에서 새롭게 믿은 성도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속아왔음을 바울은 발견하였다.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으로 그 잘못을 바로 잡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 우리는 은혜라는 새 옷을 입었지 율법주의라는 무장을 한 게 아니다. 벨라 신앙고백은 우리의 연합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 연합은 억압이 아닌 자유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새롭게 얻는 이 새로운 명칭은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이다.

기도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새로운 명칭답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편애하기

야고보서 2:1-13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2008 년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American Idol 에 투표한 미국인이 미국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나는 최근에 알게 되었다. 그 인기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는 전문가 그룹이 아마추어 가수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그보다 흥미있는 것은 시청자들도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기 전화를 하고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남들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재미있어 한다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사실이 괜찮아 보인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괜찮게 느껴진다. 그러나 반대로 남들이 당신을 평가한다면 당신을 어떻게 느낄까?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남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베푸는 자비로움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남을 평가함과 편애함이라는 독에 빠져있는 공동체의 패악을 알고 있다. 서로 세우고 돕는 커뮤니티가 변질되어 이기주의적인 편견에 따라 사람들을 나누는 그룹이 된 것이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자비를 실천함으로 돌이킬 수 있다고 믿는다. 키에르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열심이나, 웅변이나, 지식이나, 아니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자비로움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함으로 살기를 권고한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2:8-9).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하심을 입었으므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기도

예수님, 자비하심을 베풀어주소서. 종종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비하심을 잊어버리고 이웃에게 똑같이 베풀지 못했습니다. 당신으로부터 자비하심을 받은 것과 같이 남에게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화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메시지를 교회에
말기셨다”

—벨하 신앙고백

화해에 관한 아래의 묵상들은 Holland, Michigan 에 있는 14th Street
CRC 의 담임목사인 Rev. Marvin J. Hofman 의 글이다.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17-21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의 다툼처럼 들린다. 그가 개척하는 것을 도왔던 교회가 분열될 때에 바울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분열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담대한 자와 소극적인 자, 영적인 재능을 가진 자와 적은 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일어났고 바울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문제를 지적하면서 바울의 영향력은 줄어들었고 그 사이에 거짓 선생들이 끼어들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그 문제를 수정하고 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고 사도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해라는 복음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다.

화해는 사람들 간에 있는 분쟁을 극복하는 것이다. 복음은 우리의 죄가 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망가진 관계를 극복함을 의미한다.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언이며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생명을 사는” 일생을 통해 살아야 할 도전이 된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8 번).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화해의 성역을 수행할 책임과 능력을 가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사건 이후인 1994 년도의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진실과 화해 코미션)에서 데스몬드 투투는 “그 곤경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우리는 과거의 갈등을 초월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인간성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된다... 고백이 있은 후에 용서가 주어지며 치유가 행해진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연합과 화해가 이루어진다”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Doubleday, 1999, p. 120).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메시지를 당신께서 교회에 맡기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그 메시지에 충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장벽을 허물어라

에베소서 2:11-22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 또는 “우리에게” 또는 “교회”라고 할 때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 1:1—“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유대인과 이방인)과...”
- 1:4—“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를 택하사...”
- 1:9—“그 뜻의 비밀을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알리셨으니”

에베소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한 몸이 되고, “막힌 담을 허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 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문 담은 다시 지어지려 하고 있다. 여러 그룹들이 아직도 서로 미워하던지 아니면 그렇지 않던지, 아직도 그들은 동일하게 옛날의 분리되던 방식을 좋아하고 있다.

인종간의 화해와 문화간의 융합은 아직도 성취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직도 교회의 대부분은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동일할 때에 편안함을 느낀다. 최근의 연구보고는 큰 도시의 공립학교들이 오래 전에 공식적으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식당에서 끼리끼리 모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함께 사는 삶이라는 좋은 이야기를 넘어서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화해를 실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흑인과 백인을 모두 포함하여, 은혜에 의해서 구원되었기 때문이다. 은혜에 따른 구원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동일한 시민이 되고 막힌 벽을 허물라는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에 부름을 받았다.

기도

주님, 당신의 능력의 성령으로 우리가 벽을 허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소금과 빛

마태복음 5:13-16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토크쇼의 호스트가 복음주의자인 Jim Wallis 에게 “당신이 바로 그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씨로 쓰인 것을 믿는 ‘빨간 글씨 그리스도인’이군요”라고 말했다. “네, 바로 그렇습니”라고 Wallis 가 대답하였다. 그를 인터뷰한 호스트는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 잉크로 인쇄한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빨간 글씨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일부 복음주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감을 강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개혁주의 성도들은 빨간색이건 검정색이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마땅히 모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성도들에게 독특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한다.

산상수훈의 빨간 글씨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너희는...”이라는 문장구조는 매우 간결하게 듣는 이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다른 식으로 말할 수 없고 다르게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은 변질되는 세상에서 보존을 의미한다. 빛은 어두운 세상에서 방향을 의미한다. 성도들의 이러한 기독교적 정체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서로에게로 인도함을 가르친다.

벨하 신앙고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메시지를 교회에 맡기셨다”고 기록한다. 빨간 글씨와 검정 글씨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말씀을 실천합시다!

기도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화해를 전파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를 말함

에베소서 4:25-32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데 있어서 진리를 말함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진실한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다. 우리는 믿을만한 사람을 존경한다.

우리는 진리를 말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종 사실을 정확하게 말함을 의미하곤 한다. 어떤 아이가 창문을 깨었을 때에 우리는 그 아이가 자백하기를 기대하며 아이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는 지 일반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전통과 규범 또는 오래 인정된 추정이 거짓에 근거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그것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몇 세기 동안 백인들은 창세기 9 장의 “함의 저주”를 근거로 흑인 노예제도를 정당화하였다. 노아의 막내 아들인 함, “가나인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 함이 술에 취한 그의 아버지를 보고 덮어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보여서 창피하게 한 후에 노아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하였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함과 그의 자손이 흑인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가나안 백성은 코카서인, 즉 백인들이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과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비참함,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오랫동안 흑인의 노예제도를 가능하게 하였다.

거짓을 믿고 영구화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잘못된 추정에 근거한 사회악의 예는 얼마든지 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고, 철저한 정직성, 그리고 거짓을
철저하게 고백함을 가져야 한다.

기도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거짓을 쉽게 믿고
영속화한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죄가 저지른 상처와
소외시킴을 제거해 주옵소서. 우리로 진리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게 하옵소서. 아멘.

파티 복장

골로새서 3:12-17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궁홀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이
얼마나 생각하게 하는 신선한 비유인가! 에베소서 6 장에서 바울은
갑옷을 입는 비유를 사용하였다. 여기 골로새서의 본문에서 보이는
비유는 큰 파티를 위해서 입는 옷을 연상시킨다.

여기서 말하는 파티는 예수님의 정식 연회이기 때문에 언급된
옷은 품격있고 아름다운 정장을 말한다. 이 연회에서 예수께서
주인공이시고 또한 주인이시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시종도
드시고 참석한 사람들이 격식에 맞추어 옷을 입게 돕기도 하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네가 이전 삶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렸으니 이 새 옷으로 갈아입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연민: “이 옷에 네게 잘 맞는구나.”

친절: “그 옷을 입으니 정말 멋있구나.”

겸손: “정말 우아하구나.”

온화: “그래, 그게 바로 너야.”

오래 참음: “완벽해.”

용서: “기가 막히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입어서 모든 사람으로 함께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새 옷을 입고 이제는 많은
곳에 갈 수 있다. 더러운 죄의 옷을 영광스러운 새 삶의 왕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교회에 가면서 깨끗한 정장을 입는 문화가 여러 교회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을 아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하늘의 파티복장”으로 갈아입으라고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전 삶의 더러운 옷을 입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새 옷을 입도록 도우시는 그 분의 시종을 받아들이자.

기도

주님, 미움, 반목과 상처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순종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빛을 발하라

골로새서 1:9-14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죄의 영향력 안에 남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기를 거부할 때에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나 죄의 지배에 사로잡혀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아들의 나라로 오기를 초대하신다. 어두움을 떠나 빛의 세계로 오기를 기다리신다.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면 어두움은 사라진다.

빛의 나라의 시민임을 주장하면서 인종간의 미움을 조장하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 속 깊이 침투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우리 교회는 때때로 그리스도의 빛에 민감하지 못하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공의와 화해의 길로 인도할 때에 우리는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다.

벨하 신앙고백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불화와 미움, 갈등과 반목의 기운도 정복되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사회와 세상에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여는 순종의 새 삶을 살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진정으로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두움을 탈출하여 빛으로 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 것이다.

기도

우리 구주 예수님, 당신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당신의
빛으로 우리의 죄된 삶을 보게 하소서. 어두움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 삶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우리로
빛으로 살게 도와주소서. 아멘.

새 노래를 불러라

계시록 5:6-10

“새 노래를 노래하여”

우리 교회에서 음악에 대한 논의가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건전한 신앙으로부터 벗어남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찬송가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음악이 마음의 깊은 표현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좋은 노래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상충될 때에 예배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다.

우리의 다름이 배인, 불완전한 예배를 염두에 둘 때에 계시록이 상징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진정한 예배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된다. 기악 (하프), 기도 (금 대접), 그리고 영광스러운 합창이 모든 찬양을 하나님의 양에게 드린다. 모든 인종과 언어와 나라가 포함된 세계적인 합창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송을 드린다.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의 노래들이 연합하고 음악가들의 찬양이 한 곳에 집중한다면,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케스트라, 합창단, 그리고 다른 음악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한 쫓점에 맞추어 만들어내는 음악의 연합의 기쁨을 이야기한다. 벨라 신양고백은 인종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모니를 해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화해를 경험하자.

기도

음악의 재능을 인해서, 하늘의 찬양이라는 비전을 주심에 대해서,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라는 인도하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과 언어와 나라들이 어울어져 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에덴으로부터 영원까지

계시록 22:1-5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 넘어의 시간, 즉 영원을 바라보도록 한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창조세계로 인도한다. 생명나무는 과실을 맺는다. 생명의 강은 도시와 시골을 풍성하게 한다. 하나님의 종들, 주님께서 온 민족, 언어와 나라로부터 불러 모으신 종들은 영원한 빛의 영광으로 가득한 어린양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바라볼 것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영원한 삶에 관한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에덴을 돌아보게 한다. 태초에 거기 에덴에 생명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상태로 다시 나타난다. 에덴 동산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태초에 지으신 시간은 영원의 시간으로 완성된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것의 회복을 본다.

에덴으로부터 영원으로 이르는 여정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중요한 기점을 본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에덴을 새롭게 하심이다. 부활의 빈 무덤으로부터 우리는 영원의 기대를 본다. 부활은 죽음의 세력을 극복한다. 부활은 사단을 이긴다. 부활은 막힌 담을 허문다. 부활은 미래를 보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막는 모든 거침들을 제거하는 보장이 된다.

벨하 신앙고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메시지를 교회에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기록한다. 부활과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이러한 진리와 책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부활이 영원한 삶을 새롭게 창조한 것이다. 부활이 에덴을 회복한

것이다. 그 영원한 날의 영광을 상상해 보라. 그 날은 이미 시작되었다.

기도

하나님,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
에덴을 회복하고 영원히 참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능력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의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주님이 서신 곳에 서야 하며, 특별히 불의에 반대하고 부당하게 대우받는 자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

—벨하 신앙고백

연합에 관한 아래의 묵상들은 Ottawa, Ontario 에서 공공윤리를 강의하고 정책연구 일을 하는 Kathy Vandergrift 의 글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공의를 원하신다

이사야 61

“대저 나 여호와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공의로운 하나님을 생각하면 엄숙한 얼굴로 죄를 심판하는 재판관을 연상한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다. 공의는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신선한 강이나 물로 비유된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가 선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가진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공의의 의미이다.

공의는 법적인 문서나 철학적인 연구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법이다. 성경에는 공의로운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공의로운 삶을 요구하는 성경은 공의를 행하라, 약한 자를 보호하라, 또는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라 등 행동을 요청하는 동사로 표현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약속을 가지고 공의를 지켜야 함을 가르치신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시편 112:5).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06:3).

하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가장 좋은 것으로 대하기를 원하는 긴급함의 의미를 가지고 공의를 요청하신다. 창조세계는 그 안의 모든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 때에 가장 잘 완성된다. 그렇다면 공의는 사회정의를 논하는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알게 된다. 공의는 하나님의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이다.

우리는 공의가 정말로 필요한 세상에서 공의를 펼치기 위해서 파송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며, 그 내용이 벨라 신앙고백에 잘 설명되어 있다. 우리에게 임한 도전은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무어라고 응답하는 가이다.

기도

당신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까지도 관심을 두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이해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당신이 공의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신다

아모스 5:21-24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찌로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노를 나타내신다. 불의가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 보여준다. 불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 그것이 생명이건, 인간다운 삶이건, 노동의 댓가이건, 또는 자유이건,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힘을 오용함을 의미한다. 불의는 하나님의 분노를 발생한다.

나는 아모스와 같은 예언서의 존엄한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충격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배우며 자랐다. 아모스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우리가 공의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이러한 메시지는 예레미아와 이사야에 반복되어 나타나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며, 야고보에도 나타난다.

잠언은 왜 하나님께서 불의를 미워하시는지 설명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잠언 14:31). 신학자인 Carl F. Henry 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웅서만을 설교하고 공의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의를 직접적으로 대립하심을 보여준다. 성경의 그러한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무서운 공포와 비슷하다. 우리는 무섭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 위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좋아하고, 현실을 벗어나게 하는 것을 듣기 좋아한다. 불의한 현실세계 이야기를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세상은 불의로 가득차서 더 이상 참아볼 수 없어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세상이다.

기도

하나님, 당신을 분노케 하는 그것에 대해 우리도 분노하게 하소서. 불의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불의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회복시키라

이사야 58:6-12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와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권력으로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우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을 위하시고 그들을 창조세계 안에서 올바른 곳에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런 고침과 회복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억압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수많은 사람들을 삶의 고통 가운데서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듣는다.

불의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응답하는 것이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늘 쉬운 일은 아니다. 어려운 일에 부딪히거나 배고픈 아이를 볼 때에 동정심이 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고통이 어떤 사람, 정부 또는 어떤 권력의 오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정적인 반응은 자동적으로 일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는 훨씬 복잡한 사정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쪽으로부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기도 한다. 불의한 것을 목격할 때에 단순히 음식이나 의복을 제공하므로 그 불의를 지울 수는 없다.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사람들을 고통당하게 하는 그 장벽을 제거하는 일이다. 이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벨하 신앙고백은 인간관계에서 권력의 사용과 오용에 우리가 민감할 것을 지적한다. 성경은 인간다움을 우리 안에 회복해서 모든 사람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 것을 가르친다. 그것이 구속이다.

기도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위의 불의를 보게 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커뮤니티의 공의를 회복하는 보수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억압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누가복음 6:20-26

“화 있을찐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이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만, 그러한 성공은 단지 일시적인 것뿐이다. 예수님은 “화 있을찐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라고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6:25). 시편 10 편 기자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이 그들의 사악한 행동에 보응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일어나심을 기록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3:14).

공의를 다루는 성경은 앞선 자가 나중되는 주제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역할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권력을 오용하는 자들을 내리치심은 권력이 없는 자를 올리심의 다른 의미이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세계에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신다.

성경은 합법적인 권력을 등에 업고 불의를 행하는 것을 특별한 심판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0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도록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에 순종할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자라난다. 그러나 권력은 잘못 사용되고 부패할 수 있음을 공의에 대한 강조로 볼 때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

벨라 신안고백은 합법적인 정부가 억압하는 주체가 되고 많은 교회가 그러한 불의를 덮어주는 데 연루된 시대적인 배경을 두고

쓰여졌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은 하나님께서 권력의 합법성을 시험하시는 데 공의를 원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도 그러한 원리로 살것을 권면함을 알게 한다.

기도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이신 하나님, 다른 사람을 해하는 권력의 잘못된 사용과 당신을 섬기는 권력의 합당한 사용의 차이를 배우게 하소서. 아멘.

사랑, 공의, 그리고 능력: 살롬

이사야 32:1-8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공의보다 더 소중할까? 사랑은 능력을 포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공의를 다룰 때에 이러한 질문들에 직면하게 된다. 사랑과 공의는 때로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성경에서 그 둘은 살롬, 즉 완전한 평화의 두 요소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유익한 설명을 설교하고 있다: “사랑이 없는 능력은 무모하고 폭력적일 수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랑은 감상적이며 빈약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능력은 공의의 요구를 실행하는 사랑이며, 가장 좋은 공의는 사랑을 거스리는 모든 것을 수정하는 능력이다.”

킹 목사의 말을 다시 읽고 마음에 새기기 바란다. 나는 사랑과 공의를 나누도록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긴다.

우리 사회에서 능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리고 여러 단계에 나타난다.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와 나라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정의로운 관계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영향력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지 생각하여야 한다. 능력이나 권력을 오용하여 불의한 결과를 가져온 이슈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자신들의 정당한 위치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가지고 공의를 추구할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사랑과 평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평화, 안전, 그리고 안식은 사랑 안에서 공의를 실천할 때에 가능해진다.

기도

평화의 왕이시여, 공의와 사랑이 우리가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에
그리고 함께 사는 삶에 충만할 때에 가능해지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은 실망을 대체한다

누가복음 1:46-55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 보셨음이라.”

21 세기의 초반을 사는 우리는 실망할 일을 많이 겪는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불의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매일 3 만명의 어린이들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러한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삶은 실망스러운 일로 가득 찼다. 어린 나이에 임신한 그리고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마리아의 상황은 당대의 관습으로 볼 때에 버려지기 십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노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약속에 충실하시기 때문이며 세상을 올바르게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소망은 단순한 심리적인 격려만이 아니다. 소망은 문제 해결의 한 부분이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취약하다. 많은 사회 혁명가들의 이야기는 소망과 미래를 향한 비전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지탱하였는 지 잘 보여준다. 소망은 공의를 얻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끈기를 낳는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자신의 목숨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도 인종차별을 중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대답하였다. “세상 도덕의 활은 깎입니다. 그러나 그 활은 정의를 향해서 휘어집니다.” 나는 실망할 때에 이 말에서 큰 도움을 얻는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조바심치는 대신에 나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소망이며 궁극적인 승리인 공의를 내가 돕고 있는지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

기도

소망의 하나님이지여, 나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실망의 늪에서 건지소서. 이 세상에 당신의 공의가 편만할 것이기에, 나로 남에게 소망을 주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한다

시편 31:19-24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다른 사람들을 권력으로 억압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사용하기 좋은 도구이다. 그들은 저항을 잠재우고, 사람들을 홀으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자 할 때에 곧잘 두려움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두려움은 공의를 해치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이다. 우리는 두려움과 싸워서 공의를 실천하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다. 벨라 신앙고백은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공의와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분으로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를 이루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불의로 인한 피해자를 돕는 것보다 그러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대면하는 것, 특별히 그러한 불의에 우리가 포함되고 그러한 사회의 시스템에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불의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용기를 내어 맞서는 것을 포함한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방법에 전략가이시다. 예수님은 대적할 때와 회유할 때를 아시고, 자신에게 쓰워진 올무를 사용하여 대적자들의 눈을 뜨게 하실 줄 아신다.

공의를 행하는 것은 마치 장기게임과 같다.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은 낮은 줄이 때로 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용기를 가지라.

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 공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로 불의에 맞서 말하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멘.

공의를 위해 일어서라

잠언 31:8-9

“너는 병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찌니라.”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때로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다. 공의를 추구하려면 어려운 질문을 물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사건의 방법을 밝혀야 한다. 교회의 문제 중의 하나가 말을 하지 않는 잠잠함인 것과 같이, 공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때로 지지자들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배를 흔들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높이 평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역사가 보이듯이, 노예제도, 르완다 대학살, 유대인 대학살, 그리고 인종차별의 예에서 보듯이 불의에 대면하기를 실패했을 때에 악이 팽창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잠잠함이 권력의 오용을 키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서 배우게 된다.

공의를 해치는 두번째 문제는 넓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서 교회의 안전한 등지 안에 숨는 것이다. 벨하 신앙고백은, 비록 많은 교회가 그러한 역할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교회로 하여금 불의에 대항하여 증거하라고 요구한다. 유명한 선교학자인 David Bosch 는 21 세기의 교회들에게 사회의 환경이나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설득을 하게 되면서 악이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많은 교회들이 “하늘에 둔 소망에 초점을 두면서 이 땅에 대해서 가진 책임에 눈이 멀었다”고 지적한다.

나는 교회들의 목소리가 공의를 실천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당신은 공의를 실천함에 있어서 그냥 관람석에 앉아 있습니까? 당신의 주위에 당신이 마땅히 일어서 말해야 할 공의에 관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

하나님, 우리가 잠잠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숨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시고 그 일을 잘 행하도록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멘.

공의 편에 서라

미가 6: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중지시키지 않으시는가?”고 묻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실행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공의에 관한 갈등 위에 초월해야 하고 편을 들어서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교회가 중립에 서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다. 우리는 불의를 당하는 자들과 함께 서야한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잠잠함이 권력의 오용을 키우기 때문에 중립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선교학자 David Bosch 는 그의 책 *Transforming Mission* 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서 선교적인 교회는 생명의 편에 서서 죽음에 대항해야 하고, 공의의 편에 서서 억압에 대항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Orbis Books, 1991).

교회가 공의의 편에 서는 일은 지혜에 관한 일이다. 교회는 자신의 독특한 방법과 온전함을 따라서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며 권력을 오용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맞서야 한다. 행동에 있어서 결속하는 것은 공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벨라 신앙고백이 언급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서신 곳에 서야 한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인종차별에 대항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의의 편에서 계신다. 우리가 할 일도 그와 같다.

기도

주님, 우리가 관람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시대에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공의를 이루는 실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공의 기준으로서 가장 작은 것

누가복음 4:14-22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는 승리한 선수를 축하하고, 개최도시는 길가의 사람들이 그들의 행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텔레비전 쇼들은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성경은 사회계층의 가장 밑에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 즉 과부, 고아, 이방인,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로 우리의 주의를 이끈다. 성경의 이러한 주제들은 하나님께서는 부한 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을 더욱 사랑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성경의 요점을 벗어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받는 이유는 한 사회가 공의로운가 아니면 불의한가를 측정하는데 그들에 대한 처우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001 년도에 어린이 헌장을 작성한 어린이들이 그러한 진리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어린이가 살기 적합한 세상을 원한다. 그 이유는 어린이가 살기 적합한 세상은 모두가 살기에 좋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자”를 인간다움으로 대하는 사회가 가장 생산적이라는 사실을 사회과학 연구가 밝히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자.

공의는 발전을 어떻게 평가할 지에 대한 다른 기준을 제시하며 새로운 우선순위를 제공한다. 벨하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에 따라 생각하고 살 것을 가르친다.

기도

내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어긋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내 기준과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의 기준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마침 묵상

주: 본 묵상은 CRC 교단의 교회연합 관계 위원회 (Ecumenical Relations Committee)를 대표해서 벨라 신앙고백에 관한 교단 차원의 논의를 인도하는 Peter Borgdorff 박사가 작성하였다.

하나님의 권면

미가 6:7-8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본 묵상 시리즈는 “영들을 분별하라”는 권면으로 시작되어서 “공의와 자비를 행하라”는 또 다른 성경의 권면으로 마치고 있다. 첫번째 권면은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요구하고 두번째 권면은 우리의 분별의 가장 중요한 결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

벨라 신앙고백의 주제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 교회의 연합은 그리스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화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의 중심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공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행동이 교회의 삶의 기준이다.

벨라 신앙고백을 복미의 교회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묵상들이 준비되었다. 남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이 부르짖음이 복미 개혁교회의 깊고 중심적인 신념도 잘 반영하는 방법으로 벨라 신앙고백의 선언은 성경적인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가? 교회는 앞으로 몇 년간 이 질문을 상고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연합, 화해, 그리고 공의가 모든 시대와 장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라는 점이다. 우리가 받은 사명, 또한 우리의 특권은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그러한 가치를 행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전체에서 그러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기도

성령이시여, 우리가 함께 공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당신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대화에 참여하십시오!

벨하 신앙고백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에 무엇을 말하는 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는 영어, 한국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벨하 신앙고백의 연구

Sue Damon 저

다섯 단원으로 구성된 본 교재는 소그룹과 성인교실이 벨하 신앙고백을 깊이있게 공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논의를 위한 질문들,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제안들, 그리고 기타 유익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안내DVD

각 단원을 7-10분 정도 걸리는 비디오가 보이는 벨하 신앙고백과 관련된 사람들의 통찰력있는 인터뷰로 시작하십시오. 교재에서 이 비디오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구입하셔서 유익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DVD/교재 패키지

둘을 패키지로 구입하면 값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안내 DVD와 10개의 교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www.FaithAliveResources.org
또는 전화 1-800-333-83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벨하 신앙고백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찾으십시오:
www.crcna.org/belhar

벨하 신앙고백은 연합,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간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세계에 원하시는
공의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묵상집은 이 세 가지 주제를 30개의
매일 묵상으로 구성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Unity
Justice
Reconciliation



Dr. Reginald Smith는 Grand Rapids, Michigan에 있는
Roosevelt Park Community CRC의 담임목사입니다.



Rev. Marvin J. Hofman은 Holland, Michigan에 있는
14th Street CRC의 담임목사입니다.



Kathy Vandergrift는 Ottawa, Ontario에서 공공윤리를
강의하고 정책연구 일을 하고 있습니다.


FAITH
ALIVE®
Christian Resources

ISBN 978-1-59255-536-9



9 781592 555369

155274